



### 선택은 자유다



인간은 크게 거미형, 개미형, 나비형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거미형 인간은 생산적·창조적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에 얻은 지식과 경험 지위나 명성 등을 통해 먹고 산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기업 등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고 쉬지 않고 옮겨 다니며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한다.

다수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번데기가 되는 아픔(은뽀이 굶어가는 아픔)을 모면하려 그냥 애벌레로 여생을 보낸다 고 한다. 인간으로 치면, 자기의 꿈을 접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부류의 인생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나비가 된 애벌레는 생애 동안 다른 어떤 곤충보다도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나비가 됨으로써 평생 100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고, 꽃가루를 몸에 묻혀 각종 식물과 나무의 열매도 맛있게 하는 좋은 일도 한다. 나비가 된 그는 하늘을 날아 숲도 보고, 호수도 보고, 강도 유유히 즐긴다. 즉, 고통의 강을 건너 성공의 피안에

도착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건너 올 수 있도록 자기의 나뭇배를 기꺼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만일 그냥 애벌레로 남았다면, 평생 나뭇잎사귀 정도의 시야에 갇혀 살아야만 했으리라. 출발은 같았으나 그 끝은 장대한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 모두는 '나비'가 될 운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 부대끼고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애벌레로 남는다. 나비가 되든 애벌레가 되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신앙을 하노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 오직 엄마에게 젖 달라고 매달리는 배말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걷고 뛰고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신앙에만 전념할 뿐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부류가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잘 가기를 바라며 기꺼이 도우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이들도 있다.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젖 달라는 심정으로 은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요구만 한다. 그래서 불만

투성이다. 입에서는 항상 남 탓이요 자신의 잘못은 없다. 과거 은혜 받는 생활을 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자긍심이다. 평생 신앙을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신의 틀을 깨기 싫은 것이다.

또한 학식이 있고 과거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 따위는 아랑곳없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은연중에 뭔가 튀는 행동을 한다.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와 희생은 하지 않는다. 비생산적이라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며 그러한 곳에서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의 인위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위하여 오직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한 편, 힘닿는 대로 다른 이들을 돕는다. 그리고 그들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타심으로 신앙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 신앙의 형태와 인생의 형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도 자신의 배를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건너올 수 있도록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 놓는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편집부

### 2014. 전반기 좋은 기사상

(Best Article Award) 후보작

여러 내용의 기사가 있지만 2014년 전반기 베스트 기사를 뽑습니다. 후보작으로 올라온 기사들 중 언론출판사 직원들의 기사는 후보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문수기'가 가장 쓰기도 어렵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후보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로 뽑히게 되면 소정의 상금도 지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타임라인에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승리신문사(032-343-9985)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7월 7일(월요일)까지입니다.

#### 1. 김혜선의 입문수기:

80대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온 정면하여 합격하여 노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점.

#### 2. 서보목의 입문수기:

승리제단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적고, 승리제단 승사로서 제단에서 시무할 때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점.

#### 3. 박명하의 입문수기:

증산도 신앙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승리제단에 입문하게 된 과정과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잘 표현한 점.

###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 하나님께서 인류와 지구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God's Purpose for Mankind and the Earth?

神様が人類と地球のために成し遂げようとする目的は何ですか?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다시 회복하여 인간 세상의 모든 마귀 영을 소탕하여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었다.

His purpose was to mop up Satans all over the world by restoring the Almighty Trinity, and to set up the Kingdom of Heaven again.

神様の目的はなくした三位一体の神様の全知全能の権能を再び回復して人間の世の中のすべての魔鬼の霊を掃討してなくした天国を再びたてるところにありました。

하나님은 이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천 년간 홀로 역사를 해오셨다. 성경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마귀 영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To fulfill His Great will, He has been working for 6,000 years alone. But no one knew of the hidden intention of God even though such a provident salvation was clearly written in the Bible. As all men were captured by Evil Spiri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will of God.

神様はこの遠大なミムネを成し遂げるために6千年間一人でみ業をされました。聖書に人類の救済のために神様の隠されたミムネが明らかに記録されていることにも魔鬼の霊に捕われた人間は神様のミムネを全く理解出来ませんでした。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가르친다.

The Bible teaches that God will bring about these Changes on the Earth.

"He will wipe out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death will be no more, neither will mourning nor outcry nor pain be anymore"; Revelation 21:4

ヨハネ黙示録21章4節は人の目から涙を全くぬぐいにとって下さる。もはや、死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先のがが、すでに過ぎ去ったからであると教えている。\*

#### 속담 속의 영생학

### '마음먹는 대로 된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 남이다'라는 innate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오래전부터 이미 승리제단의 승리사 조희성남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이 하나 남이다'라는 증거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이 있는 존재다. 생각 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되어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올바른 가치관은 결국 마음속에 있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결국 피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이다. 요한복음 1장1절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만이 행복도 누릴 수 있고 빛으로 화하여 하나가 되는 천심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무도 찾지 못한 영생의 해법이 지구 땅 위 소사에 왔다. 대한민국 부천 소사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듣는 학문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 그 어떤 과학도 뛰어넘는 영생의 비결이다.\*

참고은 기자

#### 우리말 바꾸기

###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바로 어미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 할 수 있다.

우선,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되어 변하는 부분이며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다.

예)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이며 띄어 쓴다. 예를 들면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다.

예) 그런 것 같다, 고마울 따름이다, 아픈 데 없어?

어미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방법 - 조사가 결합하는지 여부를 본다.

① '는데'가 어미인지 의존명사인지 헷갈릴 때에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라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예) 학교에 가는데에(결합 불가능), 이 일을 하는 데에(결합 가능)

② '나바'예)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

이더군.(어미)

그 일을 고려해 본 바 없다(의존 명사)

③ '나지'예)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어미, '도착할까'와 같음)

벌써 집 떠난 지 삼년이 지났다.(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의존명사)

간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거리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한 달간, 십 년간,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만 - 비교를 뜻할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며,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키가 형만 하나, 십년 만에 만난 친구

정리하여 말하면, 어미는 의존적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의존명사는 의존적이지만 명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띄어 쓴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조사가 붙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조사가 붙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승우기자

##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마귀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죄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사망의 요소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 . . . . 선악과다

### 조희성 이근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 . . . 이것이 도통이다 . . . . .